

9월의 기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15절>

1.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2.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열정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 생명의 소망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오르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해를 입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삶의 터전 또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마음의 강건함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말이라도 고삐만 잡으면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겨울에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덩이를 만들어 비탈길에서 굴립니다. 그러면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커져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안고 잠자리에 누우면 조그만 걱정이 밤새 눈덩이가 됩니다.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나중에는 다스리기 힘들게 커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볼 때도 보면 잡초와 곡식은 함께 자라납니다. 항상 잡초가 자라나서 골치를 썩는데, 그래서 농부는 틈틈이 잡초를 뽑고 김을 매야만 됩니다. 잡초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잡초를 바로 뽑지 않고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뽑기도 힘들습니다. 염려나 걱정, 부정적인 생각도 눈덩이 같이 불어나기 전에, 잡초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그 안에서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성문에는 늘 파수꾼을 세워 둡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거나 성문에 파수꾼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이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파수꾼이 없으면 도둑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도둑질합니다.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쇠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저절로 죄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1년 해외성회

<일본 오사카성회>



▲ 펜타코스트성령운동100주년기념대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하는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 오사카국제회의장을 빈자리가 없이 가득 메운 성회장



▲ 조용기 목사 설교 2시간 전부터 몰려든 인파

1976년 조용기 목사는 일본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되는 1000만 명의 일본인을 복음화하겠다는 이른바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사명을 받고 일본 선교를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개신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교세는 아주 미비했다. 일본 개신교는 태평양전쟁 이후 교파가 없이 일본 그리스도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천황 휘하에 있었다. 말만 기독교였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시작된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8월 최자실 목사와 함께 처음으로 동경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이후 그는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오키나와 등 일본 도시들을 돌며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좀처럼 남의 일에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인들도 1980년 동경 성회를 기점으로 휠체어를 탄 여인과 청각, 언어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대 일본 선교의 큰 흐름에 한 획을 긋게 된 것은 조용기 목사와 1979년 5월 세워진 순복음동경교회를 중심으로 74개 순복음교회와 104명의 선교사가 함께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일본 복음화 여정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2001년 9월 펜타코스트 성령운동 100주년 기념집회에 대하여 회고해보고자 한다.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7천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펜타코스트 성령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는 일본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개최한 대회였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은 물론 일본 전국에 있는 백여 명의 오순절 계통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한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는 6번의 집회가 있었고 조용기 목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설교했다. 조용기 목

사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라’ (에스겔 37:9)라는 주제로 이번 성회에서 일본문화를 ‘신도문화’라고 정의하고 일본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도문화와 싸워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렸다. 이들 중 몇몇 사람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기다리는가 하면 장시간의 운전으로 쌓인 피로를 잠깐 눈을 감으며 푸는 사람도 있었다. 성회가 끝난 후 만난 한 일본 젊은이는 상기된 표정으로 “무엇보다 설교가 알아듣기 쉬워 좋았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늘처럼 실질적으로 체험하기는 처음”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이번 성회는 1978년부터 조용기 목사에 의해 제창된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통해 개혁된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두어 들고 있는 실질적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워서 부모와 형제들, 친구나 이웃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잘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 자기와의 대화

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으면 우리의 두뇌는 그 말을 참말로 인정하고 그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므로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밝고 맑고 환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아무런 고백이 없이 마음으로만 속앓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해결하실 수 있겠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의심을 대적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상황

대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 (야고보서3장2~12절)

이 매우 좋지 않고 앞길이 칙흑같이 캄캄해도 우리는 더욱 입술로 행복을 고백해야 합니다.

2. 하나님과의 대화

둘째로,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 했을 때,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은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말을 듣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고 서서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3. 이웃과의 대화

셋째로, 이웃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입을 떠났으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언제나 용기와 격려의 말로써 서로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차원의 영성

넷째로,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입술의 말로써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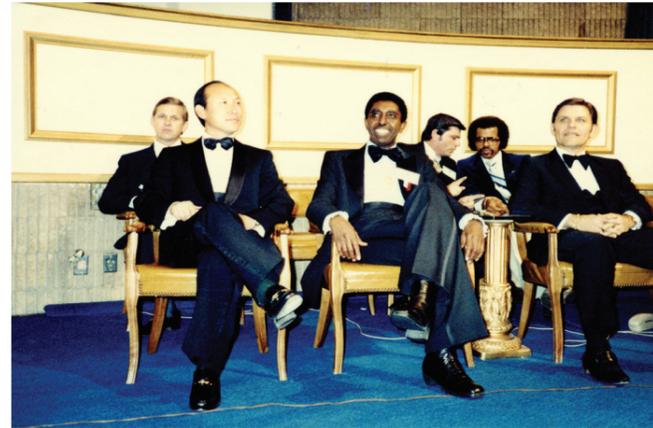
는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말이 나오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은 말이 나오고, 치료와 건강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이 나오며 부활, 영생, 천국에 가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중복음이 바로 구원 받은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변화와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우리 입술의 말로 고백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씨앗으로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치료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치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입술의 말의 권세를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6)

지구 120바퀴 비행하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



▲ 1981년 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아 취임식과 취임식 기념 만찬 참석 후 종교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 1980년 7월 스웨덴 성회. 8만여 명이 참석해 유럽 지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된 성회.



▲ 1982년 2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닐라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한 복음 활동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1964년 미국을 시작으로 71개국 350개 도시에서 성회를 인도했는데 선교를 위해 나섰던 이동 거리를 모두 합하면 지구를 120바퀴 돌 수 있는 거리가 넘는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했던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불처럼 뜨거웠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시원한 폭포수와 같았다. 세계 어디서든 조용기 목사의 성회가 열리면 항상 최대 인파가 운집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결신자가 나왔으며 아픈 사람들이 치료 받는 신유의 기적이 임했다. 조용기 목사의 첫 해외 사역은 1964년 4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하나님의성회 교단 50주년기념식’에서 시작했다. 한국하나님의성회 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가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용기 목사의 노력으로 피워진 선교의 불씨는 뜨겁게 타올랐고 미국 전역에 순복음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1967년 4월에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세계오순절총회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유럽대륙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973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서 세계최대의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전세계의 영혼들로부터 성회 인도 요청이 빗발쳤다. 조용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은혜를 받았다. 미주 지역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 방송이 전역으로 방영되며 조용기 목사의 전 세계적 복음 전도사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용기 목사는 이웃 국가인 일본 선교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1% 미만인 복음의 불모지였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일천만 구령 운동’을 펼치며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했고, 1980년 7월 6일부터는 일본 키키TV에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방송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실황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일본 전역에 방송했다. 조용기 목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국가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1982년 2월 17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마닐라 대부흥성회’에는 3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필리핀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회로 기록됐다.